

어머니의 반지를 손에 넣은 나는 그 길로 시종장을 찾아갔다.

평소 볼일이 없는 로빈 도련님이 자신을 찾아오자 시종장은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게다가 그런 도련님께서 전에 없는 명을 내렸기에 더욱 그랬다.

"도련님. 어찌 그런 명을 내리시는 것인지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유모가 내 어머니의 반지를 훔치려 했어."

내 손에 쥐어진 반지를 본 시종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정확한 가치는 몰라도 한 눈에 보아도 그 유모가 평생
을 몸으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지
닌 물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본래라면 절도는 추방이 아니라 중벌로 다스려야할
죄입니다. 도련님. 그런데 어찌 죄를 덮으라 명하시는
것인지요."

"그래도... 나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끝내려
고. 그게 나을 것 같아."

전생에 그녀가 내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 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생엔 유모가 그런 죄를 애초부터 짓지 않
도록 만들고 싶었다.

더이상 아르카나 부인과 나 사이에 끼여 더러운 음모에 가담할 일이 없도록 아예 성 밖으로 그녀를 내보내는 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응징이자 최대의 선처였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다른 분도 아닌 도련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 선에서 그녀가 성을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종장."

"네 도련님. 더 필요하신게 있으십니까?"

"일 잘하는 남자하인이 하나 필요해. 지금 바로 내줄 수 있어?"

시종장의 얼굴에 물음표가 스쳤지만 곧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표정이 되었다.

"아~ 그렇죠 도련님. 유모가 성을 나가게 되면 수발들 하인이 필요하시겠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시종장이 성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명부를 가져와 펼쳐들었다.

그 무수한 이름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다.

"여기 이 게르마누라는 자가 좋겠어."

"이 녀석 말이십니까?... 이 놈은 저 먼 숲에서 온 야만족 출신에 성에 들어온 지도 얼마되지 않은 풋내기입니다. 그보다는 여기 이 놈이 어떻겠습니까 도련님?"

시종장이 명부의 한 이름을 가리키며 자신이 추천할 녀석의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듣는 듯 마는 듯했다.

왜냐하면 시종장이 가리킨 하인은 명부의 출신지 란에 아르카나 부인의 부친이 다스리는 알란소 백작령의 마을이라 적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르카나 부인은 자신과 동향인 사람들을 외엔 신뢰하지 않는 편이어서 자기 하인들을 동향사람들로 채우는 걸 좋아했다.

예전에 유모가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는 어린 내게 자

신이 태어난 곳의 얘기를 해주었을 때.

그녀의 고향이 알란소 백작령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고른 브리오슈란 녀석은 시종으로 성에 들어와 훗날 카스텔 공작군의 장교로 성장할만큼 근접 전투에 있어선 상당한 재능을 가진 녀석이었고.

특히 본래 야만족 출신인 만큼 성 안에 다른 연줄이라곤 없이 카스텔 가문과 고정으로 거래하는 노예상인에게 특등품으로 팔려온 처지였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아니. 난 이 게르마누란 놈으로 할래. 얼른 데려와줘."

"흐으음...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알았어."

제안을 거절당한 시종장이 자신의 집무실 밖으로 빠져 나갔다.

그 등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번 생에는 이 카스텔 성 안에 내 사람들을 하나 둘 채워넣어가 보자. 이전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당해버리지 않도록.

* * *

시종장이 데려온 게르마누를 대동하고 카스텔 성을 빠져나온 나는 전당포로 향하는 길을 밟아나갔다.

거의 육중한 곰처럼 보이는 건장한 하인을 대동한 여섯살 배기 공자님의 모습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야만족 출신의 게르마누에게 공작가 남자하인들이 입는 실크의복을 입히자 그의 단단한 근육들이 옷이 찢어져라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야수처럼 늘어트린 그의 장발 사이로 빛나는 강인한 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원초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내 덩치가 작아져서 그런가. 게르마누 이 녀석이 한층 더 웅장한 성벽처럼 보인다. 역시 하인 하나는 잘

고른 것 같다.

전당포가 있는 곳은 포도주로 유명한 이 도시 생샤르트의 어둠이 자리한 환락가의 초입이었다.

아무리 공작가의 도련님이라 하더라도 어린나이에 방문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곳.

허나 게르마누가 시종이라면 이 거리의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을 것이었다.

"도련님. 내가. 지킨다."

"알았어. 게르마누. 부탁할게."

환락가의 입구에 다다르자 게르마누가 나를 향해 서툰
프롬타뉴어로 말했다.

한 때 내가 밥먹듯이 드나들었던 이 환락의 거리를 다
시 보자 기분이 묘했다.

다시 돌아왔군. 내 죽음이 시작된 이 거리에.

전당포까지 가는 길은 어렵지 않게 기억이 났다.

기억을 되짚어 나가 도착한 전당포의 입구에는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 가게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 벽
에서 튀어나와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마도구 감정사 웰턴 경의 전당포... 여기에 갖다바친
우리 가문의 귀중품만 해도 한 수레는 될 거다.

전생의 내가 가진 가장 찌질한 기억들이 떠오른 나는
고개를 한 차례 가로 저으며 전당포의 문을 열고 들어
갔다.

"어서오십시오. 허허. 어떤 물건을 맡기시러 오셨... 아
니? 카스텔의 공자님께서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
습니까."

주인의 손을 떠난 각종 마도구들이 유리로 막힌 나무
진열장 안에 빼곡히 들어찬 카운터 너머에서 외눈 안
경을 낀 백발의 노인이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다.

일차적으론 카스텔의 어린 공자가 가게를 들린 것에서,

그 다음엔 그 옆에 대동한 하인의 흉악한 인상에서 노인은 입술이 바짝 말랐다.

'오늘 장사가 안 되긴 했지만 말이지. 첫 손님부터 이런 까다로운 게 들어오는 건 달갑지 않단 말이다.'

행여나 자신이 쳐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하인을 시켜 난동을 부리진 않을까.

노인은 한 손을 의자에 앉은 무릎 위로 집어 넣어 카운터 아래에 달려있는 비상시를 위한 마력격벽을 작동시키는 마법진을 만지작 거렸다.

"이 반지에 각인된 마법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줘요."

나는 노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반지를 내밀었다.

그 반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노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런... 귀한 반지에... 꽤나 복잡한 마법식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련님... 그럼 급전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겠군요?"

"응. 난 이 반지에 각인된 마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가능해?"

한쪽 눈의 확대경으로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던 웰턴 경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다.

"그럼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마법식이 아니라서 저도 좀 찬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도련님."

"물론이지. 시간이 얼마가 들어도 좋아. 자네가 마법의 정체만 밝힐 수 있다면 말이야."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럼 잠시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해질녘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알았어. 그 때 다시 오지."

그렇게 전당포를 빠져나간 나는 게르마누와 함께 내가 자란 도시가 내 기억 그대로인지 확인하러 돌아다녔다.

도시 한 가운데 자리한 웅장한 교회의 높은 종탑.

자신이 키운 농작물을 팔러온 수많은 농민들 좋은 상품을 골라 매입하려는 상인들로 붐비는 시장.

카스텔 공작군의 병사들이 지키는 높은 도시 성곽과 성문까지.

내 기억 속의 그 도시 생사르트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활기찼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두 번째 삶이 진정 여신이 내게 준 선물인 것일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저 멀리 교회의 종탑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시간."

종탑의 너머로 해가 지는 걸 보니 웰턴 경이 말했던 세 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 있었다.

"그래. 다시 가볼까."

다시 찾은 전당포에서 우릴 기다리는 것은 자신만만한 표정의 웰턴 경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련님. 이 반지에 새겨진 마법식을 살펴보니...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었습니다."

"흥미롭다?... 뭐가?"

"이 반지에는... 마법식의 작성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로 공간이동 마법이 새겨져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고대의 것일지도 모르는 어떤 마법식까지 함께 새겨져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놀라운 정보였다.

이 반지에 각인된 마법식의 작성자라면 바로 내 어머니 베르사체 이렌느 카스텔 뿐일 것이다.

그녀는 뛰어난 마법사였고, 하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마법공방이 성 안 어딘가 비밀스러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었

다.

어쩌면 공간이동 마법은 마법공방을 향한 것일 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 더 있다는 다른 마법은?... 그건 대체 뭐지?

내 의구심을 눈치챈 웰턴 경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마법식의 형상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면 다음에 자신이 어떤 마법인지 밝혀낸다음 다시 부르겠다는 말이었다.

다른 더 뛰어난 마법사를 찾아가려면 꽤 귀찮은 일이 될 터이니 이 마법에 관한 건 보류했다.

"이 반지에 마법식을 새겨넣은 자가 어느 장소로 보내
버릴 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디 함부로
이 반지를 사용하실 생각은 마십시오. 도련님."

비록 마지막의 조언은 필요치 않은 것이었지만 웰턴
경은 내가 기대했던 것 만큼 제 할 몫을 잘해주었다.

그러니 저런 조그만 흠을 책잡을 이유는 없었다.

"그래 알았어. 게르마누. 사례비를 드려."

"네. 도련님."

게르마누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 들어있는 은화자루를 꺼내 웰턴 경이 앉아있는 카운터로 내밀었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 해지며 끼고 있는 현미경 안이 온통 시커먼 눈동자로 가득 채워졌다.

"이!... 이렇게나 많이 주시다니!..."

"싯..."

전당포에 오는 동안 지시했던 대로 게르마누는 카운터석을 양손으로 짚고 자신의 거구를 노인을 향해 들이밀었다

"반지. 비밀. 도련님. 귀. 들리면..."

그가 양 손에 힘을 주자 나무로 만들어진 카운터의 귀통이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부서진다. 너."

"예... 예!!!!... 알겠습니다! 절대! 절대 새어나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요!!!"

거의 오줌을 지릴 뻔한 표정의 웰턴 경을 남겨두고 나는 전당포를 빠져나왔다.

그렇게 다시 성으로 되돌아가려는 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어느 틈엔가 미행이 붙은 것 같았다.

나는 게르마누를 향해 작게 속삭였다.

"게르마누. 너도 느꼈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 게르마누.

야만족 출신답게 본능적으로 위기를 간파한 듯했다.

환락가의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열 보 정도 거리 벌리고 뒤를 밟는 놈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생각해본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 정실부인 아르카나였다.

이 교활한 여자가 벌써... 내가 자기 꼬나풀을 잘라냈
다는 걸 눈치챈 건가. 그렇다면 유모도 지금쯤...

"게르마누. 옆으로 잠깐 빠져."

지나가던 길에 보이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
길로 꺾어들어간 다음.

나는 품 안에 넣어두었던 보라색 보석이 박힌 황금반
지를 꺼내들었다.

"내가 이 반지를 끼면. 넌 다시 길을 빠져나가서 도시
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성으로 돌아와. 은화 한 닢을

줄테니 대충 뭘 사먹어도 좋고."

게르마누의 두껍고 넓은 손바닥에 은화 한 닢을 올려 주며 말했다.

강한 생존본능으로 눈치가 빠른 건지 프롬타뉴어가 아직 미숙한데도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자."

나는 왼손 중지에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마법식이 새겨진 반지를 천천히 밀어넣었다.

어머니께서 유모를 통해 이 반지를 내게 전해주려했다
면. 반드시 이 반지는 내게 도움이 될 곳으로 보내줄
거다.

성을 떠나던 날 어머니가 짓던 안쓰러운 표정을 생각
하며 반지를 왼손 중지의 뿌리까지 밀어넣자 순식간에
눈앞에 전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휘몰아치는 자색 마력의 기운들이 소용돌이치며 만들
어진 동굴의 저 먼 끝에 어떤 풍경이 보였다.

마치 저곳까지 다가가면 도달할 수 있을 듯이.

결눈질로 주변을 보니 게르마누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는 걸 확인한 내가 발을 떼려던 순간.

강한 회오리 바람에 등이 떠밀리며 내 몸은 앞으로 날
아갔다.

"으...으아아앗!!!"

멀었던 풍경이 엄청난 속도로 가까워지며 나는 그곳이
어딘지 알아챘다.

마법공방이었다.

- 3. 어머니가 남긴 비밀, 끝 -